

생각하기 꺼리는 세대의 한 단면

— 대학가에서 판치는 저질 베스트셀러 시집

지난 80년대는 '시의 시대'라고 할만큼 시가 양, 질면에서 급격히 발전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시를 찾아 읽었다.

요즘도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의 절반 이상을 시집류가 차지하듯, 시는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다.

이 시집에서 현재 대학인은 어떻게 시를 읽고 있으며, 그곳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까운 서울캠퍼스 회기동 주변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시집에는 '만남에서 동남까지' (박열 지음, 평선사),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 더 마음깊이는 것은 작은 웃음이다' (서은영 지음, 박우사),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신진호 지음, 혜진서관) 등이 꼽혀졌다.

결국, 상대적으로 본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겨읽는 시들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루에 한 서점에서 한권당 3~4부씩 팔린다는 사실은 결코 만만찮은 수요를 입증할 것이다. 좀더 넓게 보아 위에 열거한 시집은 대형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란을 장식하고 있어, '사랑한다는 말보다...' 경우 지난달 교보문고에서 7백30만부가 팔렸고, '만남에서...'는 현재 15만을 찍은 상태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이러한 시집류의 내용 자체가 지나친 직접성, 노골성으로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는 출판사의 의도된 상업성에 의해 위약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시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

면, 이 순간을 소중히 사랑해야 합니다 / 그대를 짝게 느끼게 됨으로 하여 / 내게는 어느 새

라 / 이런 가슴 아픔을 / 친구가 돌아올때 / 나는 웃고 있겠다 /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우 박열 시의 대부분이 혼란 내용을 행 구분과 연 구분만 하여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내용도 없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감상적, 말초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대학생 독자 가 늘고 있다

대부분 작품, 문학적 완성도·창조성 결여 출판사의 지나친 상업주의도 한 몫

습성처럼 고독이 배웠고 / ... 그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환상에 있을 때면 / 나는 머리카라 꿈속 술래의 사람이 됩니다... (만남에서 동남까지 중에서)

에) 시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 시인이 가지는 생명성이나 창조성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치열한 현실인식과 그것에의 대응 정신은 접어두고라도,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도, 새로운 체험도 전혀 녹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채호기 시인의 경

고 시로서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주로 사랑과 평상을 앞세우는 경향을 지적해 놓고 있다. 지난 70~80년대를 뒤돌아볼 때, 대학가에선 주로 신경림의 '동무', 정희성의 '저문장에 살을 씻고', 김지하의 '황토' 등 나름대로 현실인식과 서정성을 함께 갖춘 시들이 일정한 깊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감상적이고 말초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려는 독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얼굴없는 시인의 시집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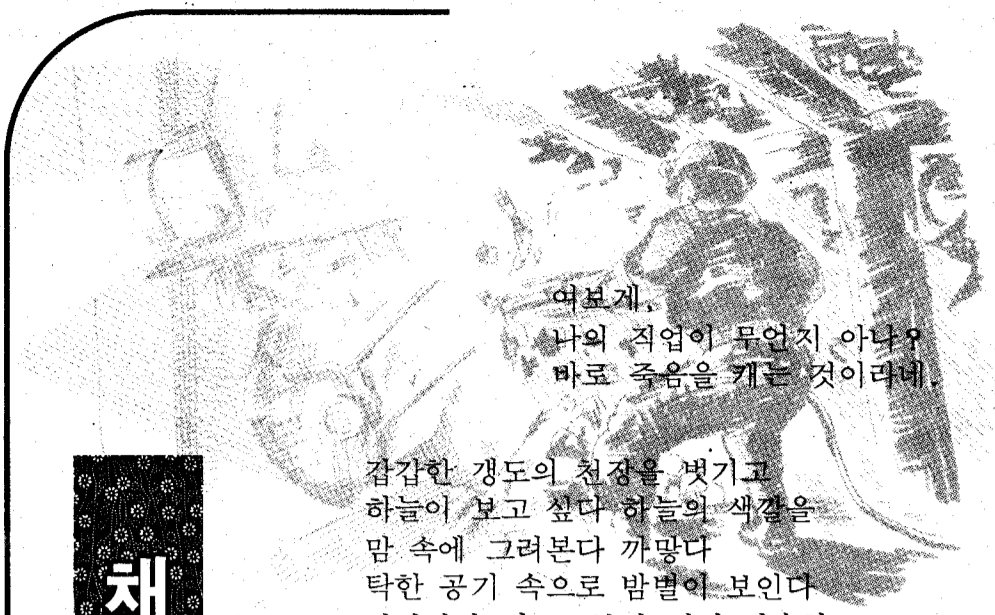
판사의 알뜰한 돈벌기 술책이 가세한 셈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시들만이 현 대학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향유되고 있으며, 그 독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반성거리를 남긴다.

이들 독자 대부분의 구매심리는 주로 본격 시집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잘 읽히고 소재나 주제가 감성에 잘 맞다는 점, 또는 주제 어디거나 짧은 시간에 쉽게 펴볼 수 있는 점들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이런 시들은 비디오, 저질영화등 전파문화의 퇴폐성, 일회성과 함께, 지나친 민중성의 노골화와 전부성의 시에 대한 반발의식이 빛어낸 것으로, 좋은 의미의 낭만적 상상력이 아닌 세속적이고 천박한 감상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분석을 내린 김재홍(동리대 국문과)교수는 덧붙여 '시의 창조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음사, '진달래꽃'을 거치면서 우리의 가장 큰 특성중 하나는 '낭만적 상상력'이었다. 그런데 앞의 시들은 김재홍 교수의 지적대로 피상적 감상주의와 상투화·유형화의 극치로 인한 하



여보게, 나의 직업이 무언지 아냐? 바로 죽음을 켜는 것이라네.

감감한 경도의 천장을 벗기고 하늘이 보고 싶다 하늘의 색깔을 맘 속에 그려본다 까맣다 탁한 공기 속으로 밤벌레 보인다 사라진다 밖으로부터 가장 깊숙히 죽음에 가장 가깝게 서 있으면 갑자기 정말 짧은 순간 저쪽 벽이 무너질 것처럼 허약해 보인다 순간 내 몸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까만 공간에 까맣게 까야마게 내리쬐어지는 탄 여섯자 세치의 좁은 방을 탈출하려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치달아 내리는 탄, 탄 검은 탄

채탄선산부

제 1회 대학주보 시문에현상 공모입선작
황범주 <구문 3>

탄층에 하나 둘 구멍을 뚫는다 구멍마다 젤라틴다이나마이트를 밀어 넣는다 그리고 불을 단다 일백이십초 후면 강한 진동음 막장의 공기를 흔들며 고막을 강하게 치면서 터지는,

덤덤한 연기를 기관지 속으로 한 줌 들이민다 토한다 한다 모두 뱉어버리고 싶다 하늘이 어둡겠다 구름에 묻힌 하늘이 감잡히다 구름같은 연기 함공기를 튼다 깔려들어가는 연기 먼지 바람을 연다 신선한 그윽한 살것같은 이, 영원한, 자유같은, 압축된

현대 문화적 경향을 어떤 이즘(ism)이나 주의

로 결정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한정의 도화지에 전 세계를 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문화의 흐름은 다수의 객관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현상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191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 문화 현상이다. 19세기 말에는 모든 시골지방들이 도시화 되기 시작하고 작가나 예술가들도 그들이 종전까지 의지하고 있던 후원자나 독자층의 문화적 경향을 초월해서 그들 자신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세계를 표현하고자 시도했던 시기였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속에서 인공적 판단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인간이 추구하는 소위 진리라는 위상

모더니즘

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매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되었다. 이로인해 예술가들은 현실의 불합리함과 소외 및 본질에 대한 회의적 작품을 나타내게 된다. 더불린의 시인인 에이츠는 모더니즘 사회를 '모든것이 와해되어 중심이 없는 사회'라고 지칭한다. 즉 모더니즘은 불확실성의 원리에 따른 예술이며 문명이나 이상의 파괴에 따른 무의미와 부조리의 상황을 표출한 현상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랑크의 상징주의의 여파로 에리엇의 객관상관을 이룬, 미술에서는 피카소의 입체주의, 프랑스의 다다이즘 및 미래파의 출현등이 모두 모더니즘의 예술적 현상이다. 그러나 진리의 주관성 및 모호함을 나타내려는 모더니즘 안에는 여전히 고전적서론의 회귀나 보수성을 갈망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들어 조이스의 짧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타난 스티븐의 예술로의 복귀나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에 표현된 한 가족의 몰락을 통한 인간 사랑의 중요성 등은 부조리한 세계를 보이면서도 결국엔 도덕적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다.

양 운 회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영문학>

문화단신

'NEFER' 가을 연주회

의과대학 고전기타반 'NEFER'는 내일 오후 6시 A·V센터에서 가을연주회를 갖는다. 올해로 두번째 연주회를 맞는 'NEFER'는 이번 공연에서 모짜르트의 '제1악장 Allegro', 바하의 'Gavotte' 등을 선보이게 된다.

'아외환경 설치 미술제' 옥포 대우조선소에서 열려

환경조각에 있어서의 철의 활용성과 그 미학적 접근을 실험하는 '아외환경설치미술제'가 옥포 대우조선소에서 지난 1일부터 한달동안 열리고 있다.

이승백, 이경용씨등 중견작가 11명이 참여한 이번 미술제는 산업현장의 노동가치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는데 주력하여, 주로 선박 건조에 쓰고 남은 폐자재와 잉여자재등을 작품제작에 활용했다.

한편, 오는 10월 중순에는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선열 동문 작품전

동문인 한국화가 이선열의 작품전이 지난 5일부터 잠실 롯데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남해!', '산마을' 등 자연주의적인 화풍을 담고있는 그의 작품에 대해 미술평론가 박용숙씨는 '그의 잔잔하면서도 정치한 묘법에 의해 소박하면서도 어딘가 긴장감을 느끼는 작가의 어떤

심상찮은 저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적고있다. (411-6784)

'아리랑'의 통일문제작 '불감증' 공연

지난 88년 청단이후, 민족극운동에 앞장섰던 극단 '아리랑'이 통일문제작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5일 막을 내린 '짐아 짐아 총점'에 이어 오는 13일까지 '불감증'을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선보인다. <사진>

노동자 노래 한마당 열려

안치환, 예울림 등도 합동 공연

노동조합 노래패들의 노래경연대회와 전통노래집단의 특별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노래한마당 '우리, 노동자 2' 및 '제1회 노동자 가요제'가 오는 15, 16일 이틀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간 전국노동자

신문이 주최하는 것으로, 첫날인 15일에는 안치환, 김광석, 노동자노래단, 예울림' 등이 참여하는 전통노래패의 공연이 4시, 7시에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치뤄진다.

이어 '제1회 노동자 가요제'가 16일 4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막을 올리며, 이후 정태춘, 제3회 전국통일노래한마당 수상자들이 참가하는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노래한마당은 노동자 노래의 창작과 보급의 장이 되는 동시에 각단위노조의 조직력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 - 럭키

생활·신재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 하이사사, UBR, SMC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 모노륨, 렉스트롬, 노브롬,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광산부, 알로에비누, 풍풍 등
- 화장품사업부 : 아드프, 마네르바, 에상스, 헤레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학부문

- 화학 1사업부 : PVC 스트레이트 레진, 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학 2사업부 :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학 3사업부 :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틸렌사업부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DPE)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